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한국경제 전망*

Covid-19 Pandemic and Economic Outlook of South Korea in 2021

조덕상**

1.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범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2020년 12월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1).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원인불명의 폐렴이 보고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3일 우한시를 봉쇄하였으나 춘절(1월 24-30일) 기간 동안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는 빠르게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중국인 여성)가 발생한 이후, 2월 19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2월 21일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 이후 3월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에서도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9일과 3월 5일에 각각의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국내는 물론 국가간 인적이동을 제한하는 봉쇄조치를 실행하였다. 미국은 2020년 3월 13일 유럽발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유럽연합은 3월 17일부터 외국인 여행을 금지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이었던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봉쇄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에 146만명 정도였던 입국자 수가 2020년 3월에는 8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최근(2020년 9월)까지도 입국자수는 7만명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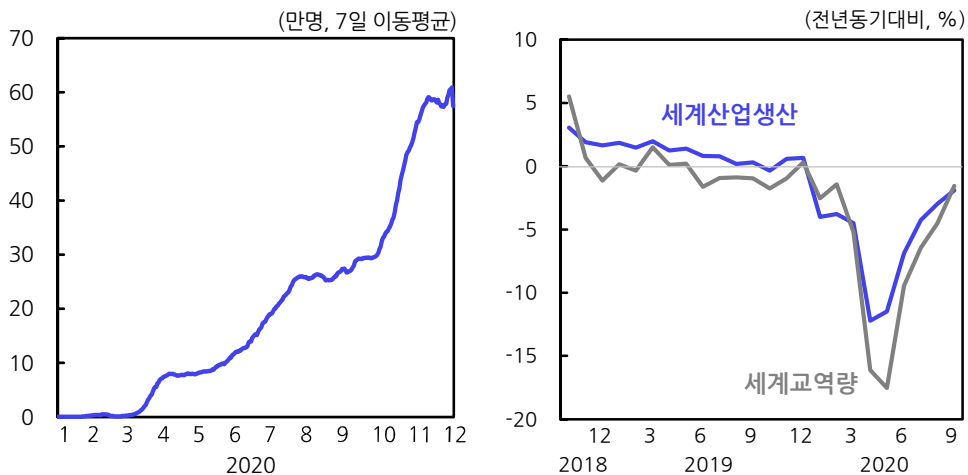
감염우려에 따른 각국의 봉쇄조치는 급격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세계교

* 이 글은 2020년 11월 24일(화)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미국 대선 이후 세계경제 전망 및 우리경제 정책 방향 모색’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부연구위원, E-mail: dscho@kdi.re.kr

역량은 2020년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4%의 감소를 기록하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그림 2),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수출도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활동 중단 조치로 인해 2020년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국민계정 실질 총수출 기준)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급속하게 위축됨에 따라 2020년 세계경제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4.4%, IMF, 2020년 10월; -4.2%, OECD, 2020년 12월).

<그림 1>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그림 2>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주: 신규 확진자 수는 2020년 12월 10일 기준임.

자료: WHO; CPB.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1차 대규모 확산은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확산세가 둔화되었다. 미국이 5월 1일 이후 경제활동을 재개하였고 유럽 일부 국가도 7월 1일부터 입국을 허용하면서 세계교역량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한국의 수출도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1월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2차 대규모 확산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월의 대구·경북 1차 확산과 8월의 2차 확산에 이어 11월 이후 3차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였고 12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수준을 넘어서면서 제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던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II.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특징과 대내외 경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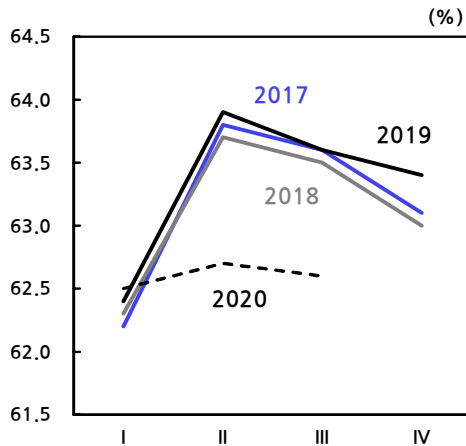
1.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특징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위기의 원인이 감염병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거시경제에 가해지는 외부적 충격을 공급요인 또는 수요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감염병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공급과 수요에 모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기의 원인이 감염병의 확산이기 때문에 감염과의 관련성에 따라 경제의 각 부문별로 일반적인 경제위기와 매우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충격은 노동공급의 감소, 방역으로 인한 생산의 감소,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전파되는 생산차질로 나타났다. 노동공급의 경우 감염, 격리, 돌봄노동 증가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2020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0.7만명 감소하였고, 계절조정 고용률은 59.5%를 기록하며 2019년 4/4분기(61.2%) 대비 1.7%p 감소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2020년 2/4분기 62.7%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하였다(그림 3).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경기후행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위기가 시작된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감염병의 확산과 방역활동이 노동공급을 급격하게 위축시켰음을 시사한다. 방역조치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살펴보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대면접촉 서비스업은 운영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을 중단되었고, 제조업도 확진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일부 사업체의 생산중단은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 위치한 기업의 생산차질로 이어지며 생산의 추가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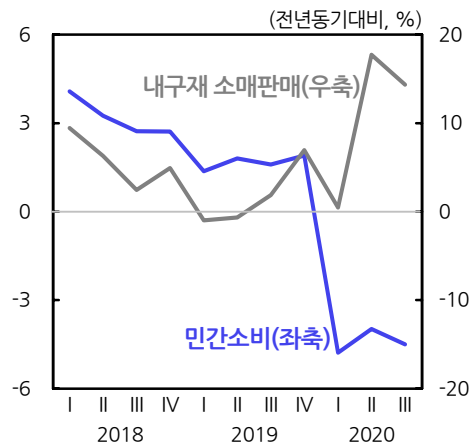
총수요 측면에서도 감염에 대한 우려와 방역조치의 강화, 불확실성의 확대에 의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서비스 소비의 경우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수요의 감소와 함께 감염 우려에 따른 자발적인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대면접촉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내구재 소비는 외부활동 감소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와 서비스 소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저축률의 상승으로 평년수준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 일반적으로 내구재소비는 경기 하강기에 다른 재화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시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내구재 소비가 연간 누적기준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상품수출 또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이후부터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4> 민간소비와 내구재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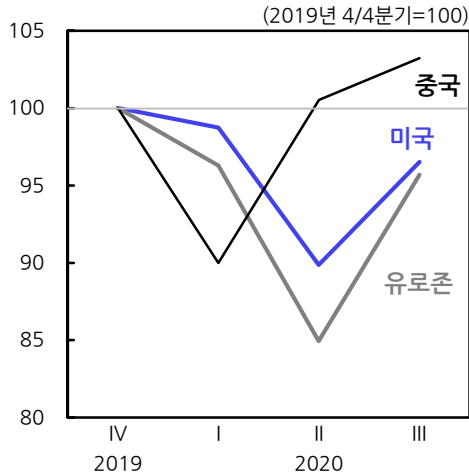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국가가 동일한 충격에 직면함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과 경기의 급격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계나 기업의 대규모 파산을 방지하면서 아직까지는 급격한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하였던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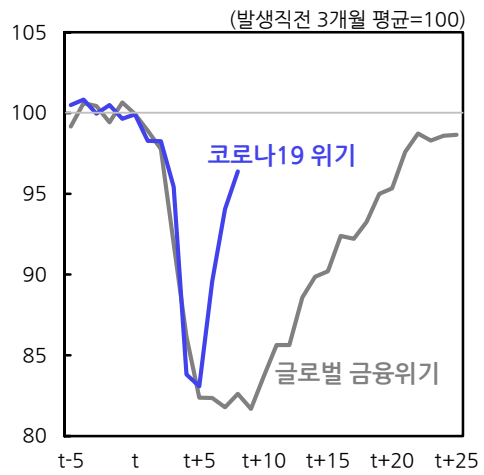
코로나19의 확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경제는 2020년 2/4분기의 급격한 위축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발생했던 중국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며 3/4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유로존과 미국도 3/4분기 중 GDP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5). 세계교역량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발생으로 각국의 봉쇄조치가 실행되었던 2/4분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와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봉쇄조치가 해제된 이후 비교적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그림 6). 이러한 흐름은 서비스 소비의 감소에 따른 가계저축의 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내구재 소비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2/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었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상품수요가 회복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그림 7). 다만 감염에 대한 우려로

<그림 5>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그림 6> 세계 교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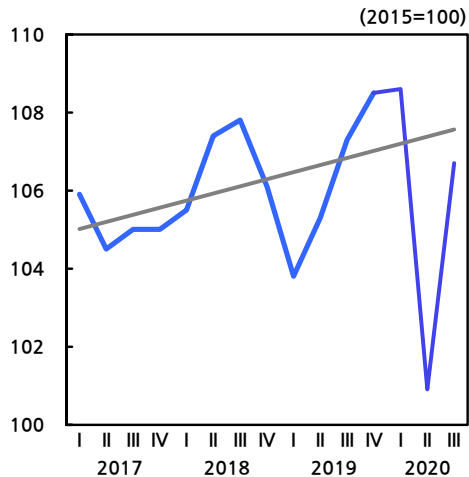


주: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의 t시점은 각각 2008년 8월과 2019년 12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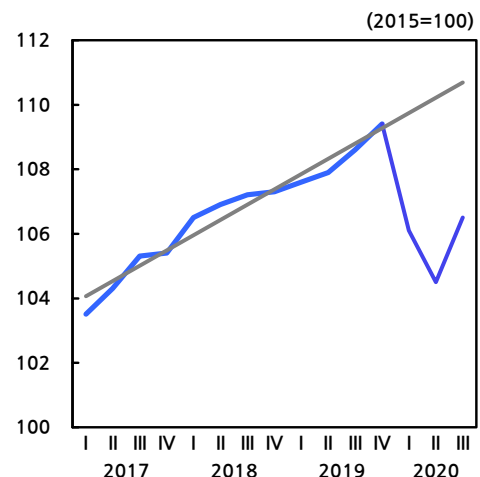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CPB.

서비스업의 위축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그림 8). 서비스업의 위축과 제조업의 회복은 수출에서도 관찰되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수출은 큰 폭의 감소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상품수출은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9). 특히, 감염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경제 관련 IT 기기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금액이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대표적인 내구재 품목인 자동차 또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10).

<그림 7> 광공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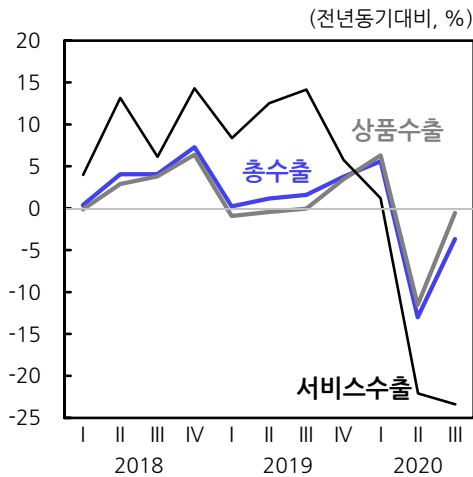
<그림 8> 서비스업 생산



주: 계절조정 생산지수. 직선은 2017년 1분기~2019년 4분기 자료의 선형 추세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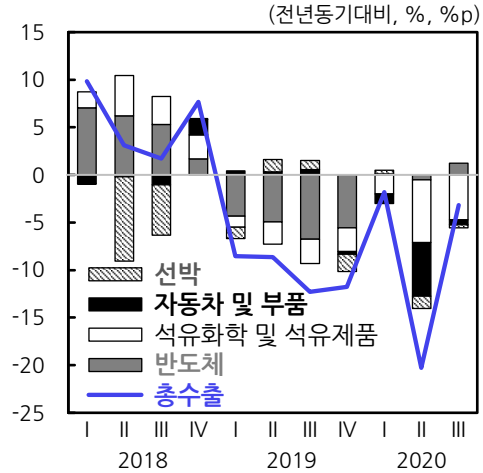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9> 부문별 수출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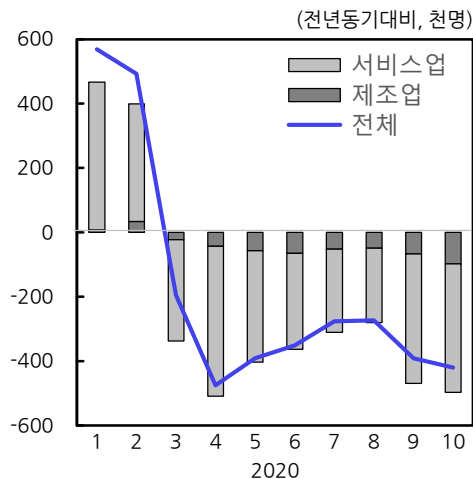
<그림 10> 품목별 수출금액 증가율 기여도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위축에 따른 경기부진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며(그림 11), 코로나19의 충격이 임시·일용직의 감소에서 상용직의 감소로 확대되고 있다(그림 12). 상용직 취업자 수의 감소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일시적인 고용 감소가 장기적인 고용감소로 전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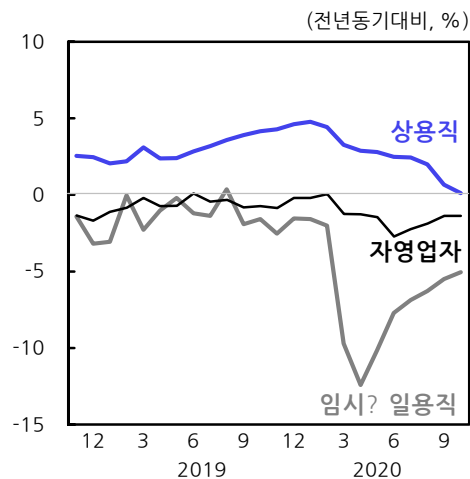
부채의 급격한 증가 또한 향후 거시경제의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

<그림 11>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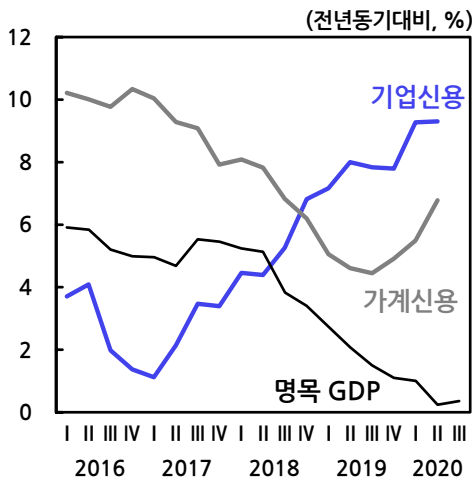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가율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막대한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대함에 따라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 즉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20년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와 기업의 신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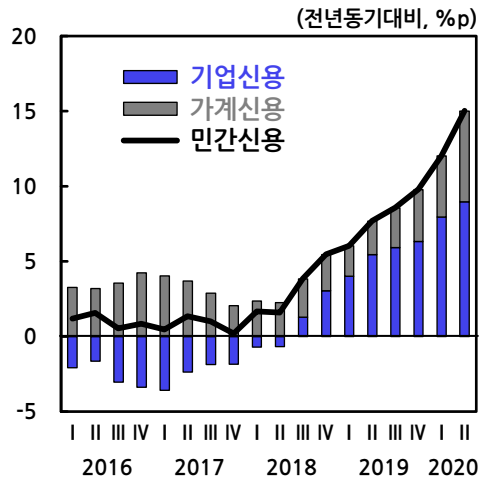
<그림 13> 민간신용 증가율



주: 명목GDP는 4분기 이동 합을 이용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4>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증감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극심한 부진과 실업의 장기화,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들도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4%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에는 4~5% 가량의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북반구의 여름 동안 잠시 잦아들었던 코로나19가 11월 이후 유럽과 미국, 일본과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규모와 범위는 이전 보다 더 크고 넓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정책여력이 크게 소진된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과 함께 최근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Ⅲ. 2020~21년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한국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으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20년 11월). 2020~21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여전히 정상 성장경로를 하회하는 미약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소비는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적이동의 제한이 지속되면서 올해 큰 폭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진으로 제한적인 성장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표 1).

<표 1> 2020~21년 한국경제 전망

	2019	2020	2021
국내총생산	2.0	-1.1	3.1
민간소비	1.7	-4.3	2.4
설비투자	-7.5	6.0	4.7
건설투자	-2.5	0.0	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7	4.3
상품수출(물량)	0.5	-2.2	3.7
상품수입(물량)	-0.8	-0.5	4.6
경상수지	600	624	579
상품수지	769	709	669
(수출증가율)	(-10.3)	(-9.2)	(4.5)
(수입증가율)	(-6.0)	(-9.5)	(6.2)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69	-85	-91
소비자물가	0.4	0.5	0.7
근원물가	0.7	0.4	0.6
취업자 수(증감)	30	-17	10

자료: KDI 경제전망.

올해 내내 경제의 위축과 회복을 좌우했던 코로나19는 내년에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KDI 경제전망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의 개발 등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전제하

고 있다. 만약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규모 재유행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하여 팬데믹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보급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서비스업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에 대응하여 수행하였던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기의 하락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을 병행하고, 은행들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화되었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부실이 누적되었거나 위기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방역체계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의 보호에 지원을 집중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은 부문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경우 방역조치로 인해 극심한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취약 부문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집중된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부문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감염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 양 측에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방역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경제환경의 변화로는 전 세계 각국의 부채 증가와 저금리의 장기화 가능성,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기후변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대선 결과와도 맞물리며 미국의 정책변화(재정지출 확대와 증세에 대한 논의, 리쇼어링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요구,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투자 등)

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성장률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며 성장 잠재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이후 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2). 이러한 생산성 증가율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자본축적에 따른 빠른 성장을 마감하고 균제성장경로에 진입함에 따라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 증가를 통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가 지연되고 있고,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하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한국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경우 202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1인당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간	GDP/인구 (1=2+3)	취업자/인구 (2)	GDP/취업자 (3=4+5)	물적자본축적 (4)	총요소생산성 (5)
1991~2000	6.0	0.7	5.3	1.4	3.9
2001~2010	4.0	0.7	3.3	0.3	3.0
2011~2019	2.4	0.9	1.5	0.4	1.1

주: 권규호·조덕상(2018)의 기간을 확장하여 저자 계산.

자료: 권규호·조덕상(2018); 통계청; 한국은행; World Bank.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은 한국경제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변화와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산업의 생존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두어, 생산자원이 원활하게 재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전적 규율 중심의 체계를 사후적 규율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여 창의적인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정체된 기업의 퇴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경제주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규호·조덕상(2018),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김현욱 편, 『글로벌 금융 위기 10년의 한국경제와 새로운 성장 어젠다』, 연구보고서 2018-10, 한국개발연구원, 20-58.

한국개발연구원(2020), 『KDI 경제전망, 2020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OECD(2020), *OECD Economic Outlook*, Paris, December, OECD Publishing.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0), *World Economic Outlook: A Long and Difficult Ascent*, Washington, DC, Octob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